

제1000회 한은금융강좌



장기 저성장 시대의 대응 :
일본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2025. 6. 13

강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학과 이창민 교수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E-mail: ecoedu@bok.or.kr)

<안내 사항>

□ 수강신청 및 취소

「한은금융강좌」의 수강 신청과 취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https://www.bok.or.kr>)

- 신청일시 : 강의 전주(금) 09:30 ~ 강의 당일(금) 09:30
 - ※ 강의자료는 강의전 다운로드하여 수강할 수 있게 강의 당일 09:30 이후 한국은행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로그인) > 경제교육신청관리 > 한은금융강좌 목록에 게시(단, 최종 파일은 VOD게시 확인)
- 수강신청 : 한국은행 홈페이지 > 경제교육 > 교육신청 > 한은금융강좌 (하단의 신청 버튼 클릭)
 - 선착순, 정원 초과 시 신청 불가
 - ※ 2015년 4월부터 수강신청 후 결석 3회 이상 시 60일간 신청 불가
- 수강취소 : 한국은행 홈페이지 > 경제교육 > 교육신청 > 신청확인
 - 강의당일 09:30 이후에는 취소 불가
-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하기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로그인

□ 입장 및 퇴장

- 입·퇴장 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QR 코드를 QR 리더기에 태그

□ 「한은금융강좌」 수료증 출력

- 수료증은 유효한 쿠폰(E-coupon) 수가 일정 기준* 이상 충족하면 출력 가능하며, 수료증 기준을 여러 번 충족하더라도 중복발급은 불가(단, 수강내역은 누적기록되며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 20매 이상(기존의 기본과정 수료증에 준하며, 기본과정 수료증과 중복발급 불가)
- 쿠폰 유효기간 : 1년
 - 개별 쿠폰별로 수강시점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기한 만료시 유효쿠폰수에서 자동 차감
- 수료증 출력 방법 : 한국은행 홈페이지 > 대국민 서비스 > 경제교육 > 수료증 발급
(OR 한국은행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로그인) > 경제교육신청관리 > 한은금융강좌 > 수료증 발급)
 - 쿠폰 발급기준을 충족한 경우, 설문 답변기간이 종료된 다음 영업일부턴 발급 가능

□ 온라인 쿠폰 발급 기준 및 확인방법

- 쿠폰은 ① 강좌 당일 오후 2시까지 강의실 입장, ② 강의 종료 후(질의응답 시간 포함) 퇴장 및 출입증 반납, ③ 답변기한 내 설문지 제출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발급
- 설문 답변기한 : 강좌 당일 오후 4시 ~ 다음주 월요일 24시까지
 - 별도의 안내메일이 발송되지 않으므로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설문에 응답
 - * [한국은행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로그인) > 경제교육신청관리 > 한은금융강좌 > 수강강좌현황]에서 수강한 강의 내역 우측에 활성화된 설문을 확인 가능
- 유효쿠폰수 확인 : 한국은행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로그인) > 경제교육신청관리 > 한은금융강좌

□ 문의 :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경제교육기획팀

- 전화 : (02) 759-5392, 5325
- e-mail : ecoedu@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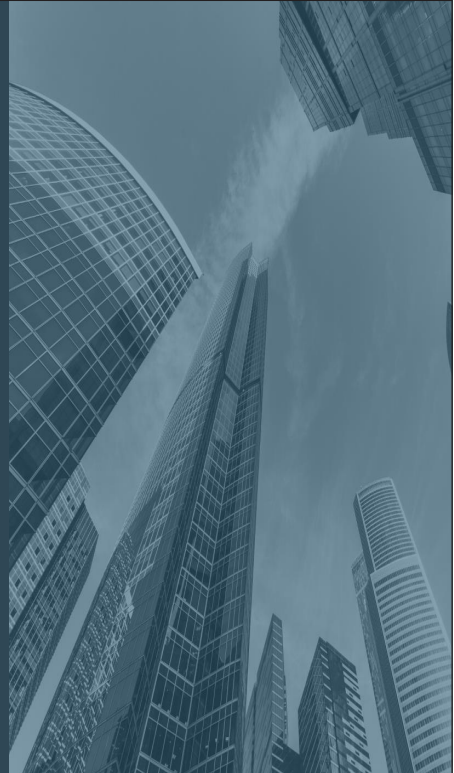
※ 강의자료의 저작권은 한국은행에 있으며 무단으로 재편집하여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한은 금요강좌

장기 저성장 시대의 대응
: 일본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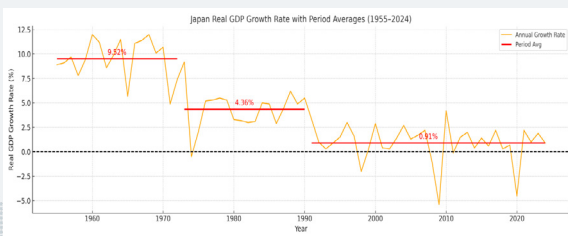
2025.6.13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창민



1. 장기저성장의 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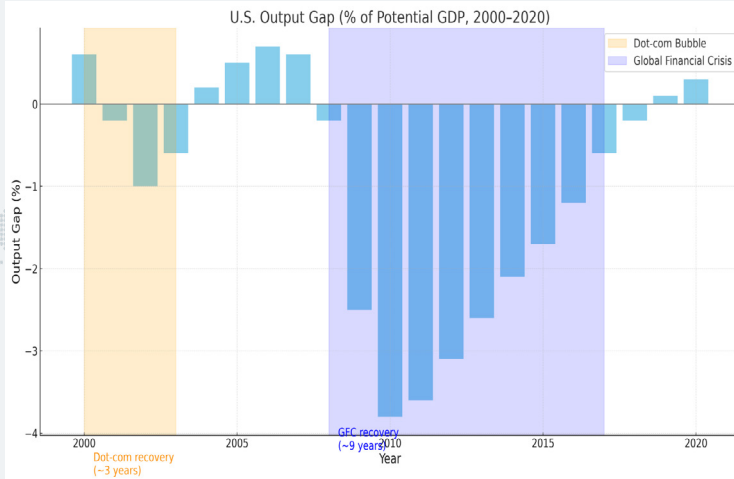
잃어버린 30년을 한국이 따라간다?



- ①고도성장기, ②안정성장기와 버블기를 거쳐, ③1990년대부터 30년간 이어지고 있는 장기저성장기
- [한국은행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 볼 교훈' 『BOK이슈노트』 2025년 6월 5일]
- 버블붕괴 전후 일본은 ①자산시장發 부채누증, ②저출산고령화, ③글로벌수평분업화라는 세 측면의 구조변화에 직면해 있었고, 이는 오늘날 우리의 사정과는 다르지 않음(①부동산發 가계부채, ②저출산고령화, ③글로벌분업환경 재편).
- 장기저성장 = 잃어버린 30년일까?

1. 장기저성장의 실체

첫 번째 미스터리



- 경제사를 통틀어 버블(1924~29년 미국 주식시장 4~5배 상승)의 가장 긴 후유증은 대공황 정도 (GDP10년, 주가25년)
- 일본의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30년은 예외적인 상황. 그래서 GFC때, 전 세계 선진국의 일본화 (장기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고착화되는 현상)는쟁이 벌어짐.
- 34년 4개월(1989.12.29~2024.2.22) 만에 주가 전고점 돌파
- ① 잃어버린 30년은 실제할까?

1. 장기저성장의 실체

두 번째 미스터리

경기순환							
순환	기간(개월)	경기저점(谷)	명칭(통칭)	확장(개월)	경기정점(山)	명칭(통칭)	후퇴(개월)
제1순환			특수 경기(特需景気)		1951년 6월	반동불황	4
제2순환	37	1951년 10월	투자 경기	27	1954년 1월	1954년 불황	10
제3순환	43	1954년 11월	신무 경기(神武景気)	31	1957년 6월	년비불경기	12
제4순환	52	1958년 6월	이와도 경기	42	1961년 12월	전환형 불황	10
제5순환	36	1962년 10월	올림픽 경기	24	1964년 10월	증권불황	12
제6순환	74	1965년 10월	이어나기 경기	57	1970년 7월	닉슨불황	17
제7순환	39	1971년 12월	열도 개조 경기	23	1973년 11월	제1차 석유위기	16
제8순환	31	1975년 3월	안정성장경기	22	1977년 1월	엔고불황	9
제9순환	64	1977년 10월	공공투자경기	28	1980년 2월	제2차 석유파동	36
제10순환	45	1983년 2월	하이테크 경기	28	1985년 6월	엔고불황	17
제11순환	83	1986년 11월	버블경기	51	1991년 2월	복합불황	32
제12순환	63	1993년 10월	カンフル景気	43	1997년 5월	일본열도총불황	20
제13순환	36	1999년 1월	IT경기	22	2000년 11월	다플래불황	14
제14순환	86	2002년 1월	이어나미경기	73	2008년 2월	리먼 불황	13
제15순환	44	2009년 3월	애코경기	36	2012년 3월	엔고불황	8
제16순환	90	2012년 11월	아베노믹스경기	71	2018년 10월	코로나 불황	19
제17순환		2020년 5월					

- 잃어버린 30년 안에 적어도 5번의 호황이 있었고, 그 중 두 번(이어나미경기 73개월, 아베노믹스 경기 71개월)은 전 후 가장 긴 호황과 두 번째로 긴 호황임.
- 이어나미경기 동안 연평균 명목 GDP 성장률 0.94%, 실질 GDP 성장률은 1.63%
- 아베노믹스경기 동안 연평균 명목 GDP 성장률은 1.88%, 실질 GDP 성장률은 0.94%에 그침.
- ② 왜 저은호황이 이어지는 걸까?

1. 장기저성장의 실체

세 번째 미스터리

91년 5월에始まった景氣後退は93年10月に終了した(経企庁)。景氣が底入れし、面復傾向が続いている背景は、(1)拡張的な財政・金融政策(公共投資、減税、低金利)の効果、(2)民間部門でのストック調整進行(企業の設備・在庫、家計の耐久消費財)、(3)物価鎮靜のプラス効果、(4)海外景氣の改善によるものである。94年度の実質GDP成長率は0.6%と93年度(ゼロ)から改善しよう。しかし、四半期ベースではプラス、マイナスの成長を繰り返し、一本調子の回復は困難であろう。物価鎮靜も加わり、名目成長率では0.9%と93年度(0.8%、戦後最低)並みにとどまろう。

日本の現状は「回復の曙光がみえ、定着を目指す」段階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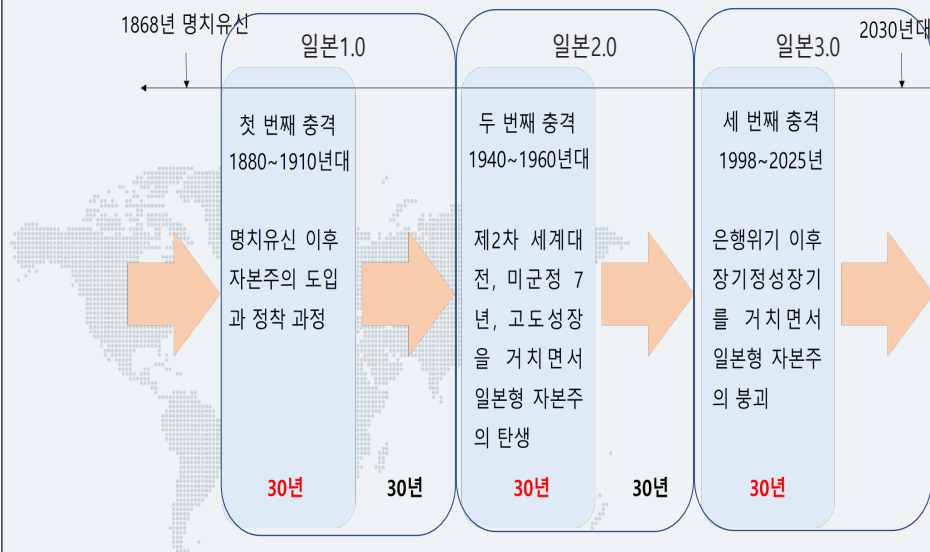
ニッセイ基礎研究所経済調査部 (1995.1.1)

일본의 현황은 회복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고, 회복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단계이다.

- 1996년까지도 일본에서는 위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음.
- 1998년 무렵부터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이 확산되었음.
- 1998년 11월 일본 총리였던 오부치 게이조(小淵恵三)가 기자회견에서 "지금 『失われた10年』から脱却しなければならぬ(지금이야말로 '잃어버린 10년'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라는 표현을 사용.
- ③ 버블이 붕괴되었는데 왜 경제위기는 생각을 못했을까?

2. 40년 체제의 후유증

150년 자본주의 역사



2. 40년 체제의 후유증

일본 1.0과 자본주의 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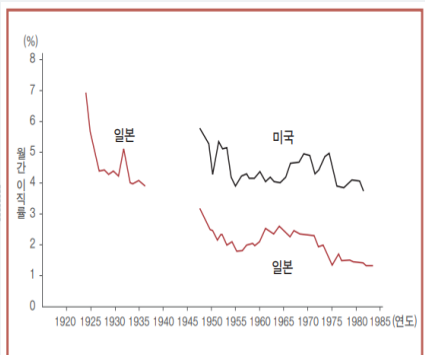
- 주식회사 제도의 이식(은행업, 철도업)
-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
- 강한 주주의 권리와 높은 배당률
- 이직이 잦은 노동자
- 비즈니스 리더의 역할



2. 40년 체제의 후유증

일본 2.0과 일본형 자본주의의 탄생

일본과 미국의 월간 이직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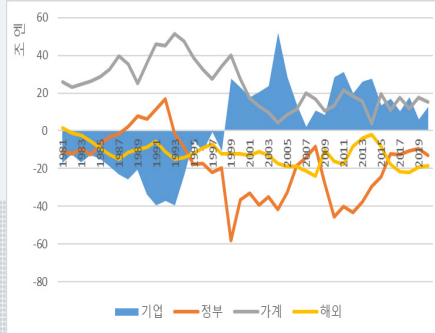
자료: 제이콥 민서(Jacob Mincer)와 히구치 요시오(樋口美雄)의 논문
(미국과 일본의 임금 구조 및 노동 회전율)(1998)

- 모순적인 기업 통치 구조: 약한 주주의 권리, 내부 승진 경영진의 강력한 경영권, 메인뱅크의 힘
- 종신고용, 연공서열임금제도, 기업별노조
- 메인뱅크 시스템, 호송선단 방식
- 행정지도와 도요타생산 시스템
- GATT체제 하에서 모노크리(제조업)로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전세계에 수출
- 1968년 일본의 GDP는 세계2위로 올라섬.
- 1인당 GDP순위는 1990년대 후반에 가장 높음(2~5위).

2. 40년 체제의 후유증

왜 불황인 줄 몰랐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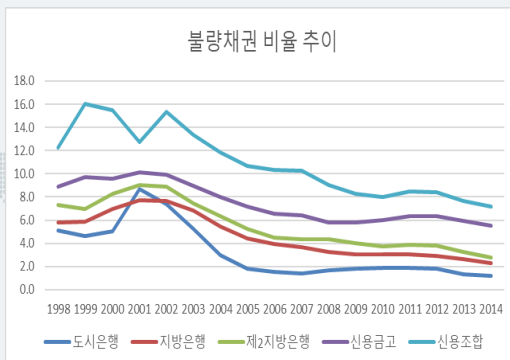
자 산	부 채
100억 폭락	60억
50억	자 본
	40억
100억	100억



- 자산 가격이 폭락(버블 붕괴)했으나 40년 체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실업도 기업의 파산도 많지 않음(질문③).
- 메인뱅크의 추가 자금지원으로 기업의 체질이 바뀌고(당면 과제는 부채 최소화), 준비화가 진행됨.
- 대차대조표 불황이 길어지면서 무차입경영이 유행, 일본경제는 유동성 함정(돈 빌려주는 사람 > 돈 빌릴 사람)에 빠짐.

2. 40년 체제의 후유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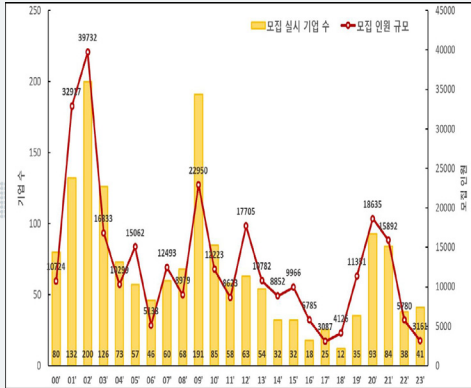
일본3.0: 은행 위기와 금융시장 개혁



- 1997년 4월 산요증권 파산, 11월 야마이치증권 파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은행위기 발생.
- 아시아 통화위기가 트리거가 됐지만, 불량채권이 쌓일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전시기에 만들어진 통제적인 금융시스템)
- 1998년 금융재생법 제정, 금융빅뱅(3대 메가뱅크의 탄생, 2001년 대장성이 재무성과 금융청으로 분리)이후 불량채권 정리에 10년 소요.

2. 40년 체제의 후유증

일본3.0: 노동시장 개혁



- 1998년부터 구조조정(조기퇴직, 명예퇴직) 시작. 2002년에 4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구조조정 됨.
- 종신고용의 입구(신졸채용)는 유지됐지만 출구(정년보장)는 붕괴 시작.
- 1999년, 2004년에 노동자파견법 개정, 비정규직 노동자 시장의 확대(약 38%)
- 최근에는 일손부족으로 대부분이 정년 이후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전보다 이직, 전직 시장은 확대됨.
- 최근에는 종신고용(생애설계의 축)의 입구와 출구 모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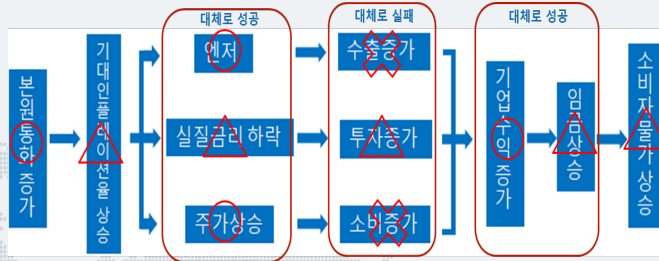
2. 40년 체제의 후유증

일본2.0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자나미경기

-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지만 기업의 체질(대차대조표 불황 속에서 무차입경영을 추구)이 바뀌지 않는 한 40년 체제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
- 중국의 WTO가입 이후, 전세계 제조업의 생산기지 겸 수출기지로 성장. 반면 엔고와 자본수익률 하락으로 일본 기업들의 해외진출(현지생산시설)이 확대되면서 GVC구조 변화.
- 장기저성장의 원인을 둘러싸고 디플레이션 자체가 문제라는 리플레이션파와 인구구조 변화, 기업경쟁력 저하 등의 구조적 요인이 문제라는 구조요인파의 대립(고이즈미는 양적완화와 구조개혁 둘 다 실시함)
- 고이즈미의 Shock Therapy → 73개월 간의 이자나미경기(2002.1~2008.2)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2008~09년), 동일본대지진(2011) 등으로 인해 이자나미경기는 막을 내림.
- 고이즈미 이후 6년간 6명의 총리 교체(아베, 후쿠다, 아소, 하토야마, 칸, 노다)라는 정치적 혼란마저...

3. 아베노믹스의 재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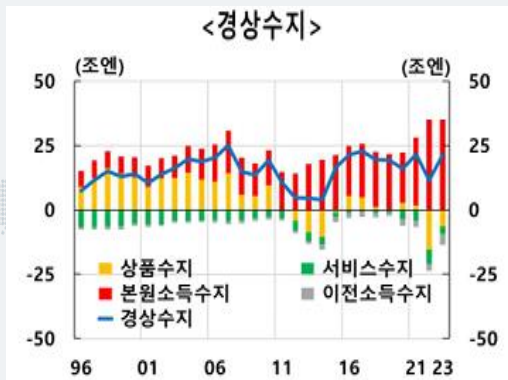
반쪽짜리 성공



- 2012년 12월 아베 총리의 귀환으로 리플레이션파의 승리,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본격적인 QE시작
- 71개월간 호황을 이끌어냈지만, 애초의 목표였던 명목 GDP성장률 3%, 실질 GDP성장률 2%, 소비자물가 상승률 2% 달성은 실패
-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목표는 결국 반쪽짜리 성공.

3. 아베노믹스의 재평가

저온호황



한국은행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 볼 교훈' 『BOK이슈노트』, p36.

- 엔저 속에서도 상품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지 않은 이유는 많은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했기 때문(또 환율의 수출가격 영향력 감소 때문)
- 엔저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적자 고착화, 해외 진출 기업은 환차익을 누리지만 국내 투자나 임금 인상에는 인색
- 결국, 엔저는 수출 증가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영업이익은 늘어나, 기업은 호황, 가계는 불황이 저온호황 국면을 만들어 냈(질문②).

3. 아베노믹스의 재평가

러우전쟁 이후의 일본경제



- 2022년 4월부터 전년 동기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를 달성한 뒤, 현재 (2025년 6월까지) 목표 초과 달성, 춘투의 임금상승률 역시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5%대
- 2024년 7월 11일 42,426포인트까지 상승, 이후 현재 3만 7천 포인트 수준
- 단, 통화정책은 경기대응수단이지 경제체질 개선 수단이 아니며, 잠재성장을 제고는 구조개혁(①기업경쟁력 제고, ②인구조조 변화 대응)을 통해서만 가능

4. 기업의 대분기(大分岐)

40년 체제(쇼와뽀이) 기업들의 한계

2010년대 일본기업의 '부정부패 사례'

년도	기업명	원인	내용
2011	올림푸스	분식회계	2001년 新 회계기준 도입하면서 이를 부의 손실로 처리하는 분식회계로 은폐
2014	다카타	에어백 결함은폐	혼다 자동차로부터 에어백 파열 사고를 통보 받은 후 2년동안 무조치 및 결함 가능성을 무시 이후 사고가 계속되어 제조업체들과 대규모 리콜 시행
2015	도시바	분식회계	5월 분식회계로 인해 지난 3년간의 실적 정정 발표 140년 역사에 큰 손상을 입히며 신용등급 강등
2016	미쓰비시 자동차	연비조작	자사가 생산하는 eK 와건과 eK 스페이스,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닛산 자동차의 4개 차종 62만 5천 여대의 연비 데이터 조작
2017	닛산 자동차	무자격자 차량검사	무자격자에 의한 출하 전 자동차 검사 실시 일부 공장에서는 38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짐
2017	고베 제강	품질 데이터 조작	생산 제품들의 품질 데이터 조작 사실 공개
2017	다카타	하청업체 부당지불	약 1년간 하청 업체 총 64개사 상대로 약 2억 5,000만엔을 부당 감액해 지불
2018	닛산 자동차	배기가스-연비 조작	일본 내 공장 6곳 중 5곳에서 5년간 19개 차종 1171대 배기가스-연비 데이터 조작

4. 기업의 대분기(大分岐)

도시바의 몰락

13대 사장 (1996~2000년)
니시무로 타이조(西室泰三)



15대 사장 (2005~2009년)
니시다 아쓰토시(西田厚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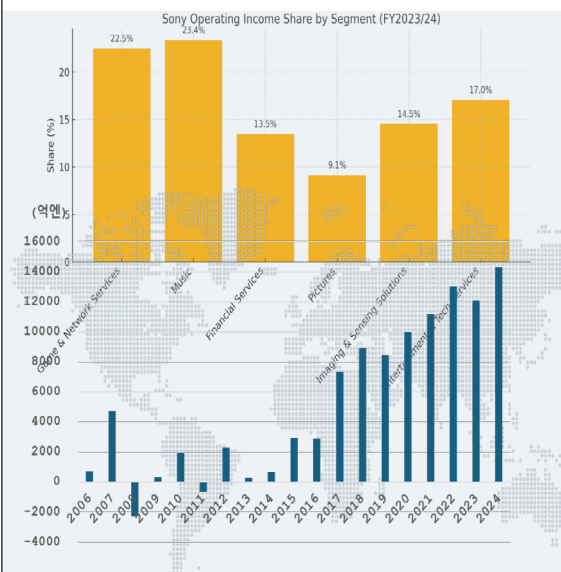
16대 사장 (2009~2013년)
사사키 노리오(佐々木則夫)



- 고도성장기 수출 주도형 일본 제조업을 상징하는 3대 기업: 도요타, 소니, 도시바
- 약 150년 역사(1875년 설립)의 도시바는 2023년 12월에 상장폐지

4. 기업의 대분기(大分岐)

소니의 변신



- 모노즈쿠리 전략(국내 수직계열화), Catch up형 기술개발, 탄탄한 내수 등의 한계 + 평면 TV 투자 주저, 스마트폰 등장으로 소니 입지 약화
- 구조조정: 2011년 TV 사업 비핵심화 결정, 2014년 VAIO 분사, 2015년 음향 영상기기 사업 분리(워크맨)
- 콘텐츠 비즈니스 강화: 영화, 음악, 게임이 영업이익의 90%
-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신사업 창조: 소니의 디바이스(스마트 워치, 로봇 완구, 자율주행 EV)로 소니의 콘텐츠를 즐기는 세상

4. 기업의 대분기(大分岐)

소프트뱅크의 AI 퀀텀 점프

영역	그룹 회사 · 출자처 · 프로젝트명	내용	
반도체 개발	Arm 홀딩스 (연결 자회사)	- 미국 GAFAM의 AI 반도체용 CPU에 기술 제공. (Google, Amazon, Microsoft, NVIDIA 등) 자체 AI 반도체 칩 개발도 검토 중	arm Google amazon Microsoft nvidia
	Ampere 65억 달러로 완전 자회사화	- 미국 오라클, 구글 데이터센터에 칩 공급할 실력. Arm과 AI 반도체 칩 공동개발 추진	AMPERE. ORACLE
	Graphcore 6억 달러로 완전 자회사화	- NVIDIA에 대항할 독자적인 AI 반도체 'IPU'를 개발 중 (소프트뱅크가 출자)	GRAPHCORE
AI 개발	OpenAI 향후 최대 400억불 투자	- 미국 데이터센터 건설 '스타게이트' 계획 공동 추진. - 소프트뱅크 자체 도입 AI 에이전트 '크리스탈 인텔리전스' 의 이용료로 연간 30억 달러 제공	OpenAI
	소프트뱅크	- 일본이 LLM 독자 개발 목표로 생성형 AI 모델 개발. - AI 기지국 (AI - RAN)에 활용 - 25년까지 1조 파라미터를 목표	SoftBank
AI 데이터센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 OpenAI-오라클과 미국 내 대형 데이터센터 구축 4년간 5천 억 달러 투자	
	소프트뱅크	- 국내 AI 데이터센터 건설 가속 (2023년 9월 200억 엔 투자로 데이터센터 가동 및 NVIDIA GPU 200기 도입) - 오사카부 사카시, 홋카이도 도마고마시 등에 거대 데이터센터 건설	SoftBank
AI 로봇	소프트뱅크	- 미국 내 여러 곳에 AI 자동차 공장(디크팩토리) 건설 계획 - AI가 생산 라인을 설계, 사람 없는 무인 공장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 및 대만 특수공과 자동화 협력 - 투자금 1조달러 예상(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2배)	SoftBank
발전소	SB 에너지 글로벌 (100% 자회사)	- 미국 내 발전 프로젝트 추진, 스타게이트 계획에 전력 공급까지	SB Energy SoftBank Group

4. 기업의 대분기(大分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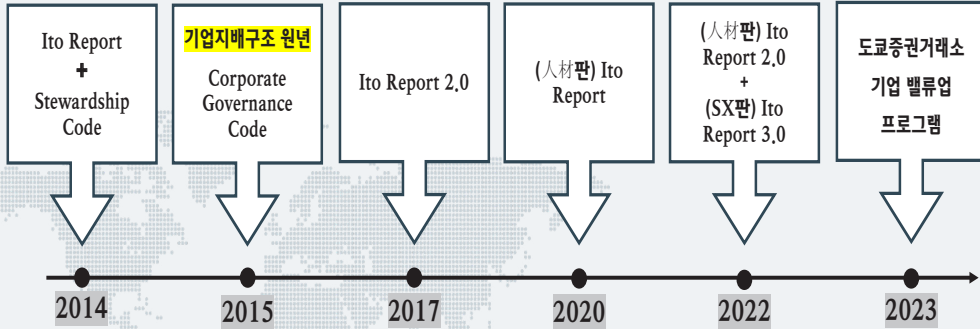
일본2.0과 일본3.0 산업군 비교

1989년 시가총액 세계 순위			2024년 시가총액 일본 순위		
순위	기업명	국가	순위	기업명	
1	일본전신전화(NTT)	일본	1	도요타자동차	
2	일본흥업은행	일본	2	미츠비시UFJ파이낸셜 그룹	
3	스미토모은행	일본	3	도쿄일렉트론	
4	후지은행	일본	4	키엔스	
5	제일권업은행	일본	5	소니그룹	
6	IBM	미국	6	일본전신전화(NTT)	
7	미츠비시은행	일본	7	퍼스트리테일링	
8	엑손	미국	8	미츠비시상사	
9	도쿄전력	일본	9	신에츠화학공업	
10	로열더치셸	영국	10	소프트뱅크그룹	

- 1989년에는 금융 기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고, 인프라(NTT, 도쿄전력) 기업 비중이 큼
- 2024년에는 제조업 · 기술 기업(도요타, 소니, 키엔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 디지털 정보통신 기업, 반도체 장비 기업(도쿄 일렉트론 등)도 상위권에 진입

4. 기업의 대분기(大分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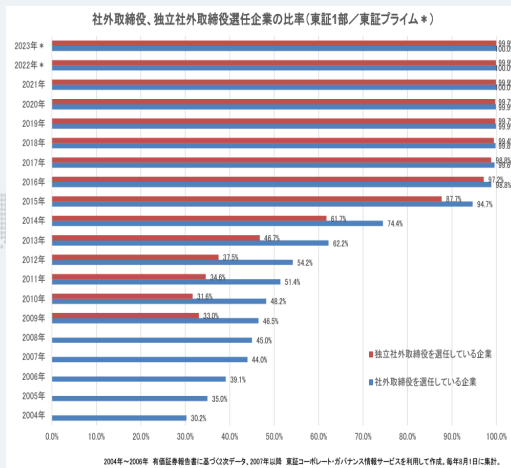
기업 지배구조 원년



- 대표적인 아베노믹스의 성과 중 하나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기업의 체질 개선과 실적 개선
- 환골탈태한 기업과 쇼와짱이 기업 사이에 옥석가리기가 끝나고, 일본2.0에서 벗어나고 있음(질문 ①)

4. 기업의 대분기(大分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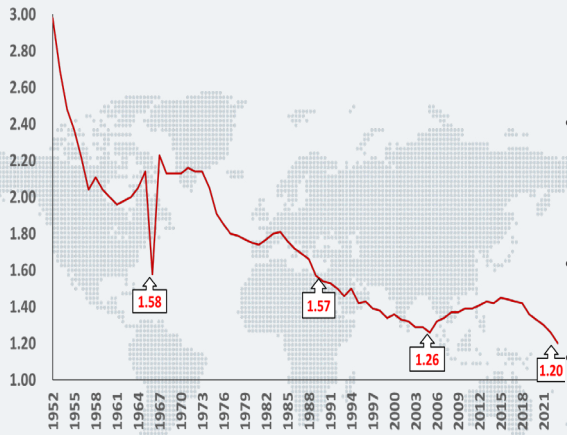
기업 지배구조 원년



- 2014~24년 동안 프라임 시장(유동주식 시가총액 100억엔 이상)의 기업의 경우, 독립사외이사는 47%에서 100%로, 사외이사는 62%에서 100%로 증가.
- 적극적인 행동주의펀드 숫자는 같은 기간 7개에서 70개로 10배 증가
- 1930년대 이후 80년 만에 도쿄증권거래소가 주주 중심주의로 회귀
- 아베노믹스는 일본경제의 ①기업경쟁력 제고를 가져옴.

5.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산정책에서 연착륙정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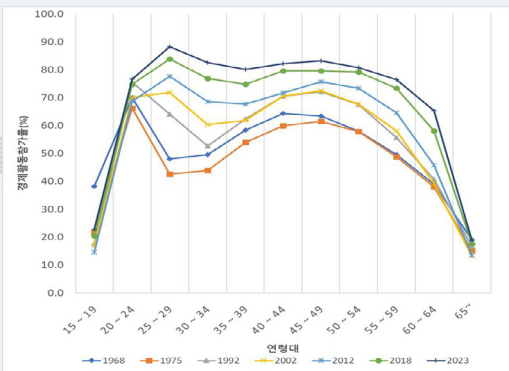


- 1989년 1.57충격 이후 1994년 엔젤플랜 시작, 이후 5년 단위로 30년간(1994~23년) 저출산 정책 시행.
- 2024년 합계출산율 1.15명 역대 최저치 기록, 출생아수는 68만 6천명으로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70만 명 선이 무너짐.
- 2016년 '1억 총활약 플랜' 제시, 저출산정책보다 연착륙정책에 방점.
- 2023년 4월 어린이가정청 출범(내각부 저출산대책 중 어린이, 청년육성지원 등 + 후생노동성 모자보건대책, 한부모가정지원 등)

5. 인구구조 변화 대응

노동인구 확대

일본 여성노동인구의 M Cur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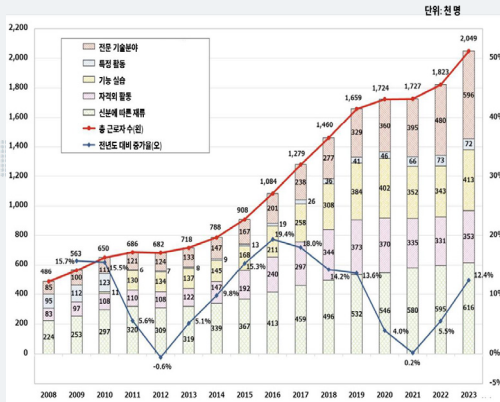


-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1995년부터 총인구는 200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2005년 초고령사회 진입, 현재 65세 이상 인구 30%수준)
- 일본은 2012년 5,500만명이던 취업자수가 2019년에 6,000만 명으로 증가(7년간 500만 명)
- 2015년 9월 '여성활약추진법', 전업주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시장 진입 확대
- 2012년 65세 이상 고용 의무화를 전면 시행, 2021년부터 근로자가 원하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주도록 노력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

5. 인구구조 변화 대응

외국인노동인구 확대

체류자격별 외국인 근로자 수 추이



- 2012년 고도인재 포인트제도 도입(화이트칼라): 학력, 경력, 연봉 등 포인트 평가로 70점 이상을 고도인재로 인정해 출입국, 재류관리상 우대조치
- 2018년 출입국관리법 개정(블루칼라): 특정기능 1호, 2호 신설, 비숙련·단순노동 외국인 대규모 수용 전환
- 2024년 10월 기준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230만명으로 역대 최대(전체 취업자의 2.3%)
- 2040년까지 경제성장률 목표(연 1.24%)를 달성하려면 68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 필요.
- 아베노믹스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함.

감사합니다

이 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changminlee@hufs.ac.kr

한국은행 소셜미디어 채널



www.facebook.com/bankofkoreahub



www.x.com/bok_h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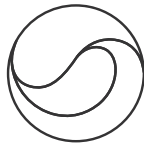
www.instagram.com/thebankofkorea



www.youtube.com/user/theBankofKoreakr



story.kakao.com/ch/bankofkorea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물가안정을 이루는 데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